칼 럼

장 기 채 주필

설에 새겨보는 덕담 이야기

새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채워갈 멋진 목표들을 하나씩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실행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다.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성취 하시길 빕니다' '새해는 꼭 취직 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주고 받는다.

물론 조금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란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담을 주고받을 때의 기분은 나쁘지가 않다. 서로의 덕담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도 남는다.

덕담은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시이며 그것은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지와 덕을 쌓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더해 줄 것이다. 덕담은 그 속성상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것이기도 하다.

덕담은 덕담을 낳게 마련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덕담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될 것인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덕담의 자세도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의 기분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아니, 새해 덕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덕담보다는 험담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쯤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기 보다는 흉보기를 즐겨하는 것은 아닌가. 장점을 찾기보다는 단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돼있지 않는가.

수고는 '남'이 하고 영광은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올해는 험담은 버리고 덕담만 해보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설날 아침에 맛보는 떡국은 지금은 쇠고기나 닭고기로도 끓이지만 옛날에는 꿩고기로 많이 하였다. 설날이 흰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날에 마시는 술은 데우지 않고 찬술을 마신다. 경도잡지에 보면 '술을 데우지 않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이 연상하는 설날의 이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매년 여유롭고 정겨운 것이다.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웃어른들의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들의 재롱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설날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해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설날이 바쁘고 귀찮기까지 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설전에 고향을 찾는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어렵게 귀성길에 올라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쫓기듯이 후딱 차례를 지낸 후 다시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는 게 요즘의 세태 아닌 세태가 되어 버렸다.

수많은 현대의 가정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설 명절을 마무리하기 일쑤다.

언제나 즐겁고 풍요로울 줄만 알았던 우리의 설날 모습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이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이는 치솟는 물가, 밀리는 임금 체불, 늘어만 가는 세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노인 복지 정책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명절 풍속도도 바뀌져야 한다. 여유를 찾아야 한다.

다가오는 올해의 설을 시작으로 자녀들과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신발도 사 드리는 등 효도를 하여야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당장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정성을 베푸는 게 참사랑 아니겠는가.

이럴 때 국민에게 감동 주는 청와대 발 덕담이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社 說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남구청 행정행위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순간의 행정적 판단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기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광주시 남구가 최영호 전 남구청장의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남구가 지난 6일께 인사혁신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되게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해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광주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11년 1월 체결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 탁계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368억 원에 달하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의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 비용인 350여억 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청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남구에 보내왔다. 감사원은 또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및 개발위탁계약서 등에 위배해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 남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최영호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구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수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최근 인사혁신처에 최 전 청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배경에는 남구와 캠코간 개발원리금 상환책임 분쟁과 달리 징계 등에 대한 재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남구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비위 내용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와 공직후보자 관리 등에만 활용될 뿐 선거출마 등 피선거권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로인해 남구나 지역민이 안고 가야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한 자치단체장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된 과오가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오는지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 고 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 · 발 행 인 김 평 호
편집인 · 편 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지난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 폭발하여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질식사 하는 등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많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하여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시 폭발하여 그 위험성이 크며 산소의 결핍으로 질식사 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화재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 ·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작업 전 · 중 환기실시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작업 중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의 실천이 필요하며 밀폐 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후 구조실시 및 보호 장비가 없을 때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여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집을 장시간 비우고 들어와서 가스냄새가 날 때는 빨리 냄새를 없앨 생각에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점화원이 될 수 때문에 위험하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가스냄새의 원인을 차단하고 완전히 환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미덕을 가져야겠다.

과거의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를 잊지 말고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어야겠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